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6.(일) 11:00 < 11. 7.(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4.(금)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 정 권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성건 (044-203-4543)

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할 펀드 사업에 6개 기업 신청

-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처음 시도하는 모델에 기업들의 투자의지 확인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기업형 벤처캐피탈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** 운용사 모집에 **6개 중견·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신청서를 제출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**기업형 벤처캐피탈 주도 펀드**는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, **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**를 추구하는 **중견·대기업들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**로서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**모기업 집단이 피투자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**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**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펀드**이다.

□ 운용사 모집 결과 **▲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, ▲씨제이(CJ)인베스트먼트, ▲에스엔에스 인베스트, ▲포스코기술투자, ▲프롤로그벤처스, ▲효성벤처스** (가나다 순)등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, **운용사별 제시한 조성목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2,810억원**으로 당초 **조성목표인 800억원의 3.5배**에 달해 **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지를 확인**할 수 있었다.

○ **중견기업**에서는 ① **조선기자재·기계** 산업의 선보유니텍, 오토닉스, 현대공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**「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」**, ② **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** 기업인 에스엔에스텍이 설립한 **「에스엔에스 인베스트」**, ③ **종합무역상사**인 현대코퍼레이션이 설립한 **「프롤로그벤처스」**가 지원하였다.

○ **대기업**에서는 ①씨제이(CJ)그룹 소속의 **「씨제이(CJ) 인베스트먼트」**, ② 포스코를 모기업으로 둔 **「포스코기술투자」**, ③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벤처캐피탈이 허용된 이후 출범한 **「효성벤처스」**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□ 산업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**11.7일(월)부터 심사평가**를 진행한 후, **11월 중 2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**할 예정이다. 심사에서는 투자역량 외에도 **기술개발, 사업화 네트워크, 수요연계 등 기업 간 전략적 협력**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.

○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을 통해 **운용사별 200억원 이내의 자금을 출자**하게 되며, 운용사는 이를 바탕으로 **관련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금**을 확보해 **목표금액의 펀드**를 조성해야 한다.

□ **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**은 "글로벌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**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매개**로 **중견·대기업의 사업역량과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이 전략적으로 결합**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하고,

○ "이번 펀드사업은 **정부가 중견·대기업 CVC와 협업**해 민간투자 촉진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**최초의 사업모델**인 만큼 **역량있는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조성과 전략적 투자**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